

# 가정예배(추모예배) 순서지

개 식 사

사 회 자

(사도신경하심으로 000님의 0주기 추모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438장

다 같 이

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얼굴 뵈기 전에 멀리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 도

말 은 이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11:28~30

다 같 이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 씬

다 내게로 오라

말 은 이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37장

다 같 이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 설교 예문 ◀

- 다 내게로 오라
- 말씀 : 마태복음 11:28~30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집어넣으면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나그네길’ ‘인생은 각자가 주인공인 영화’ 등 정말 수많은 대답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인생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시편 103:15-16, 새번역). 둘째, 수고롭고 고달픕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욥 7:1, 새번역).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생애는 수고와 허무함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수고와 허무함에 비유한 성경의 가르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수고와 허무함에 대해 조금씩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자 지나온 몇 달 혹은 몇 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참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수고하며 살다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만큼이나 의미 없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한 초청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찌면 인생은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끊임없이 걷는 여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인생의 수고와 고달픔을 잘 아십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힘들 때마다 기대어 쉴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수고로운 인생길이지만 마음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든든함이 우리 가족의 인생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이 땅뿐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쉼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허무한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버겁게 느껴질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은 우리의 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